

이 지역을 통과하
만마리보다 훨씬
호를 위한 조약인
이트 지정기준을
됐다.
서 강화도 남단 개
약 적색자료 기준
드류인 노랑부리백
마리, 쇠창다리도
크머리갈매기(천연
발견됐다.
발로 역화천연가
설 추진이 유보된
떨에서 53종의 조
요·물때새 5천5백
1년물인 검은머리
별종 위기에 있는
리가 발견돼 철새
의 가치가 높은 것

들과 환경단체들은
지가 되도록 이 지
전지역으로 지정될
강력히 요구하는 한
추진하기로 했다.
인천/김영환 기자

중계소 배달 '내달시행'

1일부터 전화 한
초본 등 각종 민
뒤 주민들이 찾
중계소까지 배달해
제도'를 시행한다.
하려는 주민들은 전
신청한 뒤 발급 여부
이'가 발급된 민원
 가까운 약국과 수
된 민원중계소에서
받을 수 있는 민원
초본이외에 지적
야대장, 지방세 완납
3종이다. (0345) 82-0
안산/홍영덕 기자



21일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로 열린 '매맞아 죽은 여자들을 위한 위령제'에서 오정은씨가 한풀이 춤을 추고 있다. 객은섭 기자

'매맞아 죽은 여자 위령제'

21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신
한국당 당사와 국민회의 당사가
마주보고 있는 이면도로 네거리.
한국 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들
이 주최한 '매맞아 죽은 여자들을 위한
위령제'가 열리고 있는 곳이다.

"가정폭력으로 숨겨진 이들의 넋을
기리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"라는 사
회자의 말에 머리에 삼배 두건을 둘러
쓴 30여명의 여성들이 일제히 고개를
숙였다.

이날 모임은 최근 남편에게 맞아 숨
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아무개(45)씨
사건 때문인지 처음부터 침울한 분위기
에서 시작됐다. 더구나 이씨가 지난해
국무총리 후보상까지 받았던 사실이 뒤
늦게 밝혀져 여성계는 큰 충격을 받은
터였다. 이씨는 30년 동안 시부모를 봉
양하고 노환으로 누워 있는 시조모의
병수발을 들어온 전형적인 한국의 효부
였다. 그러나 이젠 밤마다 남편의 손찌
검에 남편과 눈물을 삼키다 숨져야 했
던 전형적인 비극의 여인상으로 남게
될 것이라는 게 여성계의 시각이다.

"지난 91년부터 남편에게 맞아 숨진
것으로 집계된 여성이 27명이나 되며,
묻혀버리는 사건까지 합치면 희생자는
훨씬 늘어날 것"이라는 게 이날 행사에



참가한 여성계 관계자들의 설명
이다. 그러나 지난해 10월 여성
계에서 입법청원한 가정폭력방
지법은 아직까지 심의조차 받지
못한 상태다.

"사랑하는 아들이 매맞은 나의 모
습을 너에게 보일 때면 나는 한없이
부끄러웠다...제 아버를 용서하되 아
비의 폭력은 꿈에도 용서하지 말아라."
'매맞은 어머니의 기도'라는 제목의
시가 낭송되자, 펼쳐어 앉아 있던 가
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눈물을 비치더니
곧 행사장 이곳저곳에서 흐느끼는 소리
가 새나왔다. 추모가에 이어 위령곡에
이르자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. 어느
새 행사를 구경하는 여의도 네타이부대
도 1백여명에 이르렀다.

"가정폭력은 '피해자들에게 정신적·
육체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죽음으
로까지 몰아가고 있으며, 폭력을 견디
다 못해 가해자를 살해하는 일까지 벌
어지고 있습니다. 가정폭력법의 조속한
제정으로 가정과 인륜이 파괴되는 비극
을 막을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이 많
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."

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의 호
소가 있자 주위에 있던 '네티이 부대'
들의 표정도 굳어졌다. 안영춘 기자

류재늘씨 사망기

경찰 부검포기 내사종결

"심장마비" "과잉진압" 사

시위중 숨진 조선대생 류재늘씨 장례
를 보장하라는 한총련 학생들의 잇따른 건
담심시위 끝에 검찰·경찰이 결국 부검
을 포기하고 내사종결한다고 밝혀 류씨
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.

지난 3월20일 류씨가 숨진 뒤 학생·유
족과 경찰은 △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 △
과잉진압 사과 △장례 보장 등을 두고 두
달 넘게 팽팽히 맞서왔고, 최근 옛새간은
장례를 강행하려는 학생들과 이를 저지
하는 경찰이 격렬한 공방을 빚었다.

그러나 경찰이 20일 부검을 포기하고
사건을 종결함에 따라 학생·유족들은 남
은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게 됐다.

그동안 학생들은 시위하던 류씨가 숨
진 것은 경찰의 공격적인 진압 탓이라며
이를 사과하고 공개수사할 것을 요구했
으나, 경찰은 부검 등 수사를 한 뒤 인정
할 것은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
며 맞서왔다.

경찰의 선 부검 주장에 대해 학생들은
△유족이 반대하며 △지금까지 여러 사
건에서 볼 때 부검으로 사인을 밝힌 적이
없다는 이유로 반대했고, 경찰은 의문이
제기된 사망사건이고 영장도 발부돼 있
어 부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경원·교외선 비둘기호

통근형 통일호로 승격

내달16일...요금 대폭 인상

철도청은 의정부~신탄리 경원선과 신
촌~의정부 교외선에 다음달 16일부터
통근형 통일호 열차를 투입한다고 21일
밝혔다.

철도청은 이를 위해 두 노선에서 운행
되고 있는 비둘기호 열차 47개 중 34개를
통근형 통일호로 승격운영하기로 하고
냉·난방시설 등을 갖춘 별도 객차를 제

스튜어디스
KAL, ASIANA, ANA, JAL, NW,
AF, BA, CPA 등 시험대에 전문교육
취업고민 끝!
제29기 항공사 공채대비반 모집
• 최고의 합격률 • 소수정예반
• 에어스타워에스에게 결정적인 합격의 길 안내
• 모의시험(교재 및 실전문제 무료제공)
• 미국, 호주, 캐나다, 중국등 해외 단기연수안내
에어라인 트러블스쿨
전화 02)264-2133(대)

남성고민 끝
파워홀대 손은릴
기능저하 막하고
빠르다 노화현상
가제식이 달라 사용하기 쉽고
사용 즉시 효과를 알 수 있음.
상당시 당신만의 비법을 전수.
대경실업 (02)797-1347.8
전·북·통 062)257-3255 3752점

키·크·게
특허청 등록 181117호
하는 과학적인
운동기구 개발!
헬스-키 운동 이렇게 하면
몸매의 균형이 잡히고 체력이 좋아지며
두뇌기능도 좋아진다.
청소년의 키를

탕탕
★이런분께 권합니다★
•차량소지자

記者 만화영화
제작 연수생 모집
•국내 최초 최대 규모 만화영화 하원
•국내 일류감독 수시 초청강의 •입문자 강의
•국내 최고의 시설 •수료후 취업 안내
•지하철 할인
전화부 6개월